

'LG 웹OS TV'로 야구를 더 스마트하게

LG전자는 2021년형 웹OS TV에 엔씨소프트의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야구정보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응원 팀을 설정하면 하이라이트 영상, 선수 정보 등을 간추려 제공한다. 시와 대화하며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챗봇 기능도 지원한다. 'LG 생규'를 통해 음성 명령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세계 vs 롯데, '유통 더비' 치열한 신경전

“롯데 울며 쫓아올 것” vs “야구·유통 한판 붙자”

(신세계)

(롯데)

정용진의 도발적 발언에 롯데 맞수 양사 이베코리아 인수전 공식화 야구 개막전 겨냥 마케팅 경쟁 활발



'유통 라이벌' 롯데와 신세계의 치열한 경쟁 구도가 야구판으로 확대되고 있다. 3일 롯데디자인츠와 SSG랜더스의 KBO리그 개막전 '유통 더비'를 앞두고 기사용이 한창이다. 개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직접 99번 등번호가 달린 SSG랜더스 유니폼을 착용하고 공개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왼쪽)과 2015년 부산 사직구단을 찾아 롯데디자인츠 선수들을 격려하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부회장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제공 | 롯데

“롯데는 갖고 있는 가치를 본업에 연결하지 못하는 것 같다. 우리는 (본업과) 연결할 것이다. 개네(롯데)는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를 쫓아와야 할 것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30일 음성 기반 SNS 클럽하우스에서 라이벌 롯데를 향해 도발적인 발언을 던지자, 같은 날 롯데쇼핑이 롯데마트 창립 23주년 할인 행사를 알리면서 “야구도 유통도 한판 붙자”고 맞받아쳤다.

이렇듯 '유통 맞수' 롯데와 신세계가 3일 롯데디자인츠와 SSG랜더스의 KBO리그 개막전 '유통 더비'를 앞두고 치열한 기사용을 벌이고 있다.

롯데는 부산을 연고지로 둔 프로야구단 롯데디자인츠를 운영하고 있다. 신세계는 SK와인스를 전격 인수하며 3월 30일 인천을 연고지로 한 SSG랜더스를 창단했다. 20세기 롯데디자인츠와 해태 타이거즈의 '영호남 제과 더비'에 이은 21세기 '신홍 유통 더비'라는 평가와 함께 양측 연고지가 대한민국 1, 2 항구도시인 부산과 인천이라 더욱 관심을 끈다.

●치열한 라이벌 구도, 야구판으로 확장

그간 양사는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복합쇼핑몰 등을 운영하며 '유통 라이벌'로 자리매김해왔다. 최근에는 미래 생존 여부가 달린 온라인 쇼핑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 중이다. 신세계는 SSG닷컴을 기반으로 네이버와

협력 체계를 구축했고, 롯데는 중고나라 인수 거래에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하고 롯데온 신임 대표에 나영호 이베코리아 전략기획본부장을 영입하는 등 디지털 역량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양사 모두 최근 정기주주 총회를 통해 이베코리아 인수를 공식화하며 외나무다리 승부가 접쳐지는 상황이다. 이커머스 3위인 이베코리아를 인수하면 어느 쪽이라도 단숨에 네이버, 쿠팡과 함께 3강 구도를 형성할 수 있어 누가 승자가 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런 양사의 치열한 경쟁 구도가 이제는 야구판까지 확대되는 모습이다. 자존심을 건 라이벌전인 만큼 단순 야구단에 머무는 게 아닌, 그룹 차원에서의 전략

이 야구장으로 정조준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롯데는 1월 이대호와 2년 계약을 연장하면서 이례적으로 “신동빈 회장이 야구를 좋아하시고 그룹 차원에서 강력한 지원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롯데홈쇼핑을 통해 야구단 연계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3월 모바일 TV를 통해 롯데 디자인츠 정규시즌 입장권을 최대 25% 할인가에 판매했고, 2월에는 구단 정백전을 생중계해 누적 접속자 12만 명을 모았다. 향후 유니폼, 야구용품 등 야구단 굿즈(기념품)도 단독 판매할 예정이다.

신세계는 SSG랜더스에 사업 담당을 신설해 이종훈 SSG닷컴 마케팅 담당에게 맡기는 등 그룹 내 유통 체널을 통한

야구 마케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신세계푸드는 추신수 관련 식품 출시를 위해 '추추바', '추추빵빵' 등의 상표권을 출원했으며 신세계L&B는 야구장 마케팅을 겨냥한 해외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수제맥주 사업을 추진 중이다.

●3일 개막전 겨냥...대형마트 장외 경쟁

공교롭게도 롯데디자인츠와 SSG랜더스는 3일 오후 2시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리는 KBO리그 개막전에서 맞붙는다. 기선제압 차원에서라도 양사 모두 개막전 승리를 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개막전 승리를 염원하며 이번엔 양사 대형마트가 나서 역대급 규모의 할인 행사로 뜨거운 장외 경쟁을 펼치고 있다. 롯데마트는 1일 창립 23주년을 맞아 4월 한 달간 대규모 할인 행사를 연다. 특히 3일 KBO리그 개막을 기념해 야구단 이름을 활용한 '자이언트 행사'를 진행한다. 자이언트 크기의 대용량 상품을 사전 기획해 50% 할인 판매한다. 롯데마트가 야구단과 연계한 마케팅 행사를 기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상진 롯데마트 마케팅부장은 “롯데디자인츠 개막 경기와 창립 행사가 맞물려 역대급 행사를 준비했다”고 했다.

이마트도 1~4일 상반기 최대 할인 행사인 '랜더스데이'를 연다. 4일 간의 대한민국 할인 상륙작전'이라는 주제로 1+1, 초특가 상품, 50%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마트 측은 “3일 KBO리그 개막전과 연계한 할인 행사를 기획 중”이라며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랜더스 할인 행사를 정례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유에민진 작가의 작품 속 인물들은 허무와 풍자가 가득한 역설적인 웃음을 보여준다. 이들은 마치 작가의 분신처럼 느껴진다. 사진제공 | 유에민진, 한 시대를 웃다! 사무국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유에민진 ‘한 시대를 웃다!’

차이나 아방가르드의 선두주자...대규모 개인전 5월 9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서 전시

“아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조용필의 노래 '그 겨울의 찻집'의 가사 중 일 부분이다. 웬 조용필인가 싶지만, 이 작가의 작품을 보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이 노래가 떠오르고 만다. 작품 속의 등장인물들은 웃고 있지만 어쩔지 눈물겹다.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냐.

차이나 아방가르드의 선두주자 유에민진 작가의 전시가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제5, 6전시실에서 진행 중이다. 전시의 타이틀은 '한 시대를 웃다!(A-Maze-Ing Laughter of Our Times!)'. 지난해 11월에 시작된 이 전시는 관람객들의 폭발적인 반응과 끊이지 않는 시민들의 발걸음에 힘입어 5월 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전시는 유에민진의 대표작부터 최신작까지 그의 작품세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다. 전시의 기획은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의 총감독과 부산비엔날레 총감독을 지낸 유재삼 상하이 하우 아트뮤지엄 관장이 맡았다.

우스꽝스러운 포즈를 취한 채 실없이 웃는 얼굴의 인물을 화면에 반복적으로 등장시키는 유에민진의 작품들은 작가의 이름은 몰랐어도 보자마자 “아, 이 작품!” 할만한 것들이다. 이 웃음은 작가의 자조적인 웃음이자 절망적인 사회를 허무와 풍자로 표현한 역설적인 웃음이다. 작품 속의 남자들은 유에민진 자신을 모델로 삼아 탄생했다고 한다.

이번 전시는 국내외를 통틀어 최대 규모로 열리는 작가의 개인전이기도 하다. 시그니처 얼굴을 담은 유휘작품부터 대규모 조형작품, 최근 선보이고 있는 꽃 형상의 얼굴을 그린 작품까지 유에민진만의 예술세계 전반을 아우른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웃음', '한 시대를 웃다' 등 총 6개 공간으로 전시장을 마련했다.

도예가 최지민(숙명여대 도예과 교수)과 백자 컬래버레이션을, 판화 공방 P.K 스튜디오와는 전통 판화기법으로 제작한 판화 컬래버레이션을 선보여 전시의 스펙트럼을 넓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기획사 엑스씨아이의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이벤트의 제목은 '한 행운을 뽑자'이다. 값을 따질 수 없을 만큼 귀한 판화 컬래버레이션 작품부터 유에민진 친필 사인 도록, 호텔 숙박권 등 다양한 경품이 걸려 있다. SNS를 통해 전시회 관람을 인증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필수 해시태그와 이벤트 계정을 태그해야 응모가 완료되며 응모방법을 필독한 뒤 참여해야 한다. 응모방법은 유에민진 전시회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형도 기자 hmyang0307@donga.com

대한항공 “아시아나 이어 LCC도 통합...인위적 구조조정 없어”

우기홍 사장, 31일 기자간담회서 밝혀 아시아나, 2년간 자회사 운영 뒤 통합

대한항공이 아시아나에 이어 계열 LCC(저비용항공사) 3사도 통합을 진행한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31일 오전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아시아나 항공 인수와 관련해 “2년간 독립적인 회사(자회사)로 운영하고, 이후 통합 절차를 거쳐 '대한항공'이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합병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은 17일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해 자회사로 두다가 2024년에 통합항공사를 출범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산업은행에 제출했다. 우 사장은 “개별회사 때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통합 2년 후부터 본격적인 '플러스'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로나19 여파 회복을 전제로 연간 3000억에서 4000억 원 정도의 시너지를 전망했다.

우 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처음으로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계열 LCC에 대한 통합방침을 밝혔다. 우 사장은 “시너지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합병이 필수적”이라며 “통합 LCC를 대한항공 산하에 둘지, 지주사인 한진칼 산하에 둘지 검토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지상조업사와 IT 계

열사인 한진정보통신과 아시아나HDT도 하나의 회사로 합칠 방침이다. 다만 예약 발권을 맡은 토파즈와 아시아나세이브의 경우 “각자 고유한 고객층이 있어 독립적으로 유지하는 방향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양사 노조가 예민하게 지켜보는 통합 이후 중복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인력 구조조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우 사장은 “중복 간접 인력은 1200여 명으로 매년 발생하는 자연감소를 고려하면 문제가 안 되는 수준”이라며 “인력 재배치로 구조조정이 노조와 협의해 단체협약도 무리없이 승계하겠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아시아나 항공 통합일정을 밝힌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 뉴스

이밖에 마일리지 통합은 “법률적 제약으로 아시아나 마일리지 적립 규모를 현재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면밀히 보고 합리적 전환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금호석화, 조카 박철완 상무 해임...“충실의무 위반”

박 상무 “일방적인 퇴임” 반발

금호석유화학(이하 금호석화)이 삼촌 박장구 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박철완 상무를 해임했다. 금호석화는 31일 박 상무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를 위반해 관련 규정에 의거한 계약해지’라는 게 금호석화 측 설명이다. 미등기 임원인 박 상무는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금호석화 ‘조카의 난’은 고 박정구 금호그룹 회장 아들인 박 상무가 1월 삼촌 박창



박철완 상무

구 회장과 의 특수관계를 해소한다고 공시하면서 불거졌다. 또 이사 교체 등을 요구하는 주주 제안으로 경영권 분쟁을 공식화했다. 박 상무는 금호석화 개인 최대 주주(10%)다. 하지만 26일 열린 주주총회 표결결에선 박회장 측에 패했다. 박 상무는 “일방적인 퇴임 처리”라고 반

발했다. 박 상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영권 분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 경영권 분쟁으로 호도하며 퇴임시키는 점은 유감이다”며 “앞으로도 주주들과 소통하며 거버넌스의 개혁을 통해 기업가치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